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5월 교육 내용	04
☼ 5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5월 둘째 주	
어린이 QT God's Time	18
☼ 5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2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29
어린이 QT God's Time	30
☼ 5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1
어린이 QT God's Time	42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0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1
☼ 위드 포토	52
☼ 5월 추천도서	54
☼ 5월 위드스티커	55
☼ 5월 교육활동지	57



5월 교육내용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암송 구절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3절)

♥첫째주♥

“믿음의 대장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3절)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요.

♥둘째주♥

“복된 가정”

- 전세대 예배 -

♥셋째주♥

“믿음의 대잇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5절)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요.

♥넷째주♥

“가정 예배로 다시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번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창세기 35장 3절)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실천 내용

1.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 위에 바로서는 가족이 되기
2. 패밀리데이 가정예배 자료집으로 가정예배 드리기



5월 첫째주
2017년 5월 7일~13일





첫째주

- ♥ 주제 :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 ♥ 암송구절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들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 열왕기상 2:3
- ♥ 성경 이야기 : 믿음의 대장부 ▷ 열왕기상 2:1-4
- ♥ 오늘의 포인트 :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힘써 무엇이 되라고 하였나요? (2절)
- 2)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나의 말로 대답해 보세요. (3절)

★ 교육 활동 - “더 깊은 말씀 나눔”

- ① 성경을 읽고 위의 질문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 보세요.
- ②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③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결심한 내용을 기억하며 한 주간 실천해 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 ♥ 암송구절 :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3
- ♥ 오늘의 포인트 :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믿음의 대장부 ▷열왕기상 2:1-4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번성시켰던 다윗왕은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워 오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지요. 유언은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을 말로 남기는 것이예요.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을 것이예요. 하지만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3절, 새번역)”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실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나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소망해요.



Q 1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되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Pray 날마다 말씀위에 굳건히 서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17:1-19 “하나님께 집중한 여호사밧”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2.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3.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 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4.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5. 주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6.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 버렸다.
7. 그는 왕이 된 지 삼 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8.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야,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9.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10.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국방: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여 나라를 지키는 일

요새화: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도록 튼튼한 요새로 꾸며놓은 것



with
관찰

1.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3절)

그의 조상 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2.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삼 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하게 한 일은 무엇인가요? (9절)

“그들은 의 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을 가르치게 하였다.”

with
생각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여호사밧은 그의 조상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전국에 보내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였어요. 유다는 점점 더 강한 나라가 되어갔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어요.

with
결심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자,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가 되기 원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18:1-22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4.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5.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사백 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6.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물어 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 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생략)
12.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यो."
13.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 Check
- Q. 단어사전
- 통솔 : 무리를 거느려 다스림
- 길한 것 : 좋고 순조로운 것



with
관찰

1. 아합 왕이 예언자 미가야를 싫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7절)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한 번도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것만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2. 왕의 신하가 미가야에게 왕의 승리를 예언할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자, 미가야는 뭐라고 대답하였나요? (7절)

“나는 다만 내 께서 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with
생각

여호사밧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어느 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두 왕은
이 일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언자들을 불렀어요. 수백 명의
예언자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용기 있는 예언자는 미가야
한 사람뿐이었어요. 미가야는 왕과 신하들이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괴롭힐
것을 알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어요.

with
결심

아합 왕처럼 자신에게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예언자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는 용기를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18:23-34 “아합의 죽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5.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도록 하여라.
26.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27.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 마디 덧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28.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29.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30. 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십시오."
31.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 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 가게 하신 것이다.
32.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33.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 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34. 그러나 그 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저녁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거름에 죽고 말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해거름 :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with
관찰

1.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자, 아합은 그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나요? (26절)

“이 자를 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과 을 았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2.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33절)

“한 이 무심코 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with
생각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힘을 합쳐 전쟁에 나갔어요. 아합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마치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했어요. 하지만 아합은 어느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하나요?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19:1-11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4.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 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5.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6.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7.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 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8.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9.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10.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요.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민정 : 백성들의 사정과 생활 형편

송사 :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판결을 구하던 일

with
관찰

1. 여호사밧이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며 한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완성해주세요. (4절)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께 하였다.”

2.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9절)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하는 마음으로,
 하게,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with
생각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었어요. 그는 나라를 둘러보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없는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는지 살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재판관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도록 하였어요.

with
결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자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을 보며 기뻐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나의 기도 :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 열왕기상 2:3 -



위드

5월 둘째주
2017년 5월 14일~20일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0:1-19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2.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 왔습니다."
3.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생략)
14. 그 때에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맛다니야이다.
15.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16.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17.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18.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19. 고향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전령 : 해가 서쪽으로 넘어
가는 일. 또는 그런 때.

with
관찰

1. 전령을 통하여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나요? (3절)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하여 주실 것을

비는 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을 내렸다.”

2. 야하시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17절)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가 너희와 있겠다.”

with
생각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서 전투에서 승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with
결심

때로는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승리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0:20-30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죽였다.
-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고, 모두 **주검**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생략)
-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 사람들은 거문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망대: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높이 세운 곳.

주검: 죽은 사람의 몸.



with
관찰

1.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사밧은 무엇이라 말하나요? (20절)
“...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2.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께서 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with
생각

여호사밧왕은 전투에 나가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자,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사밧의 통치 동안 평안했습니다.

with
결심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여호사밧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20:31-37 “실수를 조심하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1.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서른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실히의 딸이다.
32.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 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 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경직하게 행하였으나,
33. 산당만은 헐어 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34. 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35. 한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야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36. 아하시야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 었다. 배를 만든 곳은 예시온계벨이었다.
37. 그 때에 마레스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 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상선: 사람이나 짐을 나르
 는데 쓰는 배.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1:1-20 “여호람의 최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죽였다.
 (생략)
-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생략)
-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다 왕 네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네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걸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네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 이제 나 주가 네 백성과 네 자식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생략)
-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두 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 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으레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서른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 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엘리야 예언자가 했던 여호람에게 여호람이 어느 왕들이 걸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였나요? (12절)

○ 人 人 ○

2.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7절)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with
생각

여호사밧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여호사밧 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는 동생들과 지도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살았어요. 이방민족과 결혼하였고, 우상숭배를 계속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 예언자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셨어요.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 여호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with
결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여호람의 최후는 쓸쓸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평안하게 왕위를 이어갔지만,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말았어요. 우리도 방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따라 살겠어요.
나의 기도 :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 열왕기상 2:3 -





5월 셋째주
2017년 5월 21일~27일



Memory Time



믿음의 대잇기

셋째주

♥ 주제 :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 암송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신명기 6:4-5

♥ 성경 이야기 : 믿음의 대잇기 ▷ 사사기 2:6-10

♥ 오늘의 포인트 :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몇 세에 죽었나요? (8절)
- 2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은 후, 일어난 세대는 무엇을 알지 못하였나요?
말씀을 읽고 나의 말로 대답해 보세요. (10절)

★ 교육활동 -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에요”

- 1 컬러 A4 용지를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접어요.
- 2 접은 종이 위에 활동지에 있는 사람을 올려놓고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요.
- 3 서로 연결된 사람 모빌이 완성 되었어요.
- 4 우리 가족의 이름, 하고 싶은 말, 기도제목 등을 자유롭게 써보아요.
- 5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요.

Sweet

가족과 함께하는

Time



♥ 주제 :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 암송구절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신명기 6:4-5

♥ 오늘의 포인트 :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믿음의 대잇기 ▷ 사사기 2:6-1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7절)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까지 모두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신앙을 잘 이어 받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상을 섬기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릴레이 경주로 비유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믿음의 조상들의 바통을 이어 받았어요.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때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Q 1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Pray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2:1-12 “하나님의 뜻”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4.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5.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6. 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에 입은 부상을 치료 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 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7.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을 갔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시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8.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문병 : 아픈 사람을 찾아가 위로함

징벌 :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줌



with
관찰

1. 아하시야는 어떤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 악을 행하고 망했나요? (4절)

“그는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2.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문병을 갔다가 오히려 해를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7절)

“이것은 이미 께서 일을 그렇게
 썼기 때문이다.”

with
생각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아합 가문의 뜻에 따라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 예후를 세우셨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아합 왕가와 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징벌했어요. 아하시야와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with
결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행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3:1-15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들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 그는 또 일반 백성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제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다.
-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 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 보니, 왕이 성전 어귀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 그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 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 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말의 문' 어귀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당번 : 담당 순번, 담당
 순서

비번 : 담당이 아닌 쉬는
 순서

경호 : 위험한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보호함

with
관찰

1.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누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켰나요? (8절)

○ ㅎ ○ □

2.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어디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했나요? (14절)

“ ... 여호야다는 의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with
생각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왕이 될 만한 유다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겨우 살아 남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성전 밖에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결국 아달랴는 처형을 당했어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나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 진다고 했어요. 그 약속이 방해자 아달랴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with
결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로 약속 하셨어요.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3:16-21 “하나님의 백성으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6.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17.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맛단 제사장을 죽였다.
18.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19.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0.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21.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라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왕좌 : 왕의 자리

도성 : 왕이 있던 수도가
 성으로 이루어진 곳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4:1-14 “우선순위를 세워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4.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십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자,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오?"
7. 그 사악한 여인 아달라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
8. 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9. 왕은 명령을 내려서,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 13.

(생략)

14.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 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지체 :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끄는 것

추궁 : 잘못된 일에 대하여 엄하게 따져서 밝힘.

성물 :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제물

with
관찰

1.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 했나요? (5절)

“...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을
 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시오...”

2.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7절)

“사악한 여인 ”

with
생각

남 유다 왕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했어요. 성전이 아달랴 여왕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 파괴되고, 거룩한 기물들이 다른 우상을 숭배 하는데 사용되어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한 거예요. 레위인은 성전을 고치기 위한 돈을 모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헌금할 수 있도록 했어요. 백성과 지도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했고, 그 돈으로 부지런히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일꾼들도 열심히 일해서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세워졌어요.

with
결심

요아스의 마음에 일 순위는 돈도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어요. 다른 것 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돈을 걸어 자신을 위한 왕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웠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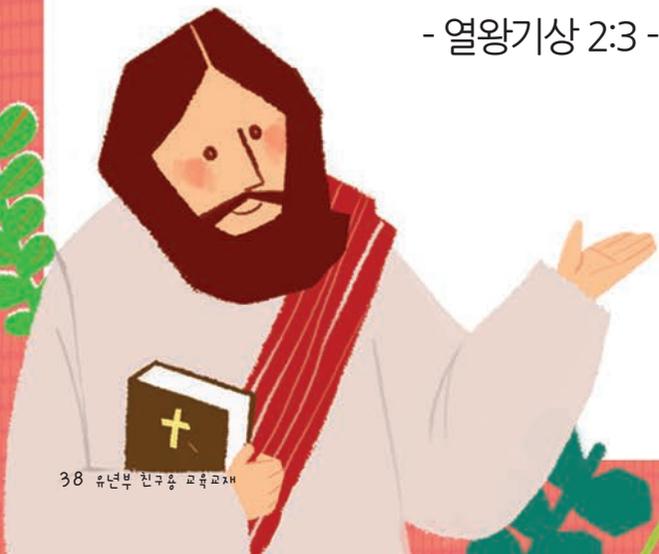
한줄 기도 : 하나님, 제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기
원해요.

나의 기도 :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 열왕기상 2:3 -



위드

5월 넷째주
2017년 5월 28일~6월 3일



Memory Time



가정 예배로 다시 시작

넷째주

- ♥ 주제 :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 ♥ 암송구절 “우리가 일어나 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 창세기 35:3
- ♥ 성경이야기 : 가정예배로 다시 시작 ▷ 창세기 35:1-7
- ♥ 오늘의 포인트 :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 말씀 나눔(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1절)

- ②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2-3절)

★ 교육활동 - “가정예배 서약서”

- 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요.
- ② 위드지에 있는 가정예배 서약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은 뒤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 ③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 암송구절 :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세기 35:3

♥ 오늘의 포인트 :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가정예배로 다시 시작 ▷창세기 35:1-7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주변의 부족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어요. 야곱은 자녀들의 일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살면서 제단을 쌓으라”(창 35:1)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집안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베엘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정에 닥친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요.



Q 1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Pray 우리 가정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4:14-27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4.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 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손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15.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햇수는 백삼십 년이었다.
16.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17.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18.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19. 주께서는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20.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를 버렸으니, 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번제 : 제단에 제물을 태워 바치는 것

안장 : 편안하게 장사지나다



with
관찰

1. 힘써 예배하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 백성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17-18절)

“백성은 주 조상의 의 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려고 예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언자에 대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나요? (19절)

“주께서는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하였다.”

with
생각

여호야다는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도 그런 여호야다를 따라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자, 백성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려고 보낸 예언자의 말조차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변하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는 내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주님만을 끝까지 예배하는 제가 되고 싶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17.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5:1-16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지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5.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삼십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6. 이 밖에도 그는 은 백 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십만 명을 고용하였다.
7.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8.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9.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 이스라엘 군인을 고용 하느라고 지불한 은 백 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10.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11.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였다.
12.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만 명을 산 채로 붙잡아서, 절벽 뒤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출병 : 군대를 싸움터로 보내는 일



with
관찰

1. 전쟁에 나가려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였나요? (8절)

“ 께서는 임금님을, 도
하실 수 있고, 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람에게 답변을 들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도 결심했어요. 그 결과 유다군대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었나요? (11-12절)

“아마샤는 를 내어 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명을 죽였다.”

with
생각

나라의 중요한 전쟁을 앞둔 아마샤는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고민했어요. 아마샤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결과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예요.

with
결심

아마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마샤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5:17-28 “하나님이 하신 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7.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18.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19. 너는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네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너는 네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20.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아스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21.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22.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23.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 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사백 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24.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벧에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회답: 물음이나 편지에
 반응함
화근: 재앙의 뿌리

with
관찰

1.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마샤는 자신의 승리에 우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이 전쟁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내용을 채워보아요. (19절)

“...어찌하여 너는 네 과 를 함께
 시킬 화근을 불러들이느냐?”

2. 성경은 아마샤가 이 전쟁을 나서기로 한 일이 어떠한 이유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나요? (20절)

“유다 사람들이 신들의 뜻을 물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호아스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아마샤의 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with
생각

아마샤는 앞선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따라온 결과인 것을 잊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쭐해져서 다른 나라와 힘을 겨루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에돔 신들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마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사이의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전쟁을 아주 마음 아파하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 아픈 것을 참으시면서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가 될래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6:1-23 “하나님께 죄를 지은 웃시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6. 웃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17.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의 제사장 팔십 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18. 웃시야 왕을 말했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웃시야는 들으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यो.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오."
19. 웃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20.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 곳에서 쫓아냈다. 주께서 웃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21.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22. 웃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23. 웃시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옷시야 왕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요. (16절)

“옷시야 왕은 이 세어지면서 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2. 하나님께 죄를 짓는 옷시야를 향한 제사장의 말을 완성하여 보아요. (18절)

“이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오. 왕이
하였으니, 주 께 을 받지 못할
것이요.”

with
생각

옷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옷시야는 자신이 들어가는 안 되는 거룩한 곳에도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이러한 행동을 말리는 제사장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옷시야의 행동에 아주 크게 화가 나서서 그에게 나병이 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옷시야의 힘이 세어졌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옷시야는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with
결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해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시편 127편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하나님이 우리가정을 지키심을 이야기해주세요.



시편 127편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OO(아)야, 잘 잤니?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란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 OO(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고 상이란다. OO(이)는 우리가정의 복이란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OO이의 삶이 되길, 그리고 OO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길 늘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자.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와 한 해를 돌아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아래 노래를 부르거나 읽어주세요.



하연이에게(자녀를 위한 기도) _한웅재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본다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 안에 숨겨진
사랑을 나누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맘 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본다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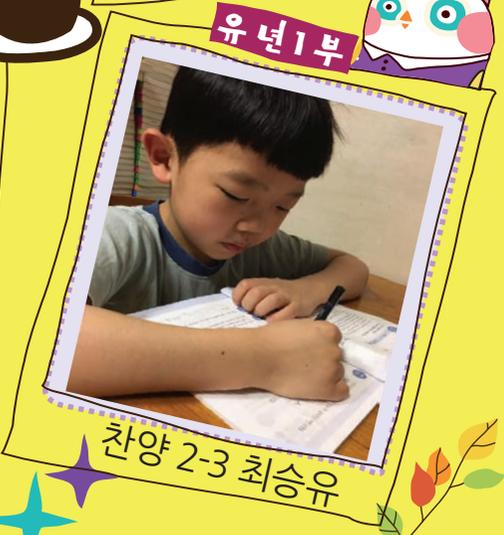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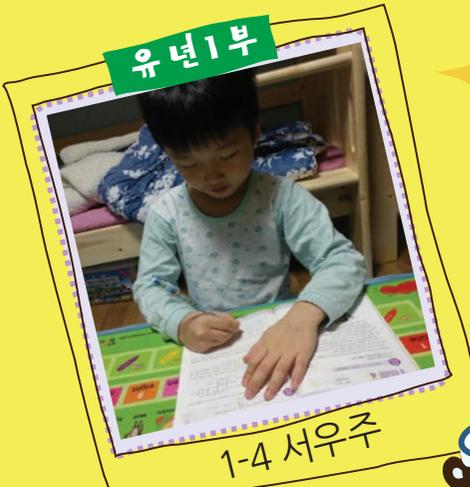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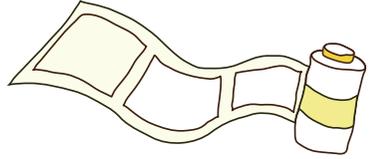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 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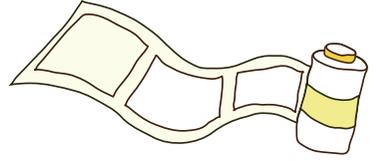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OO(이)의 하루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OO(이)가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 지친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OO(이)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OO(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니드 PHOTO



유년부 PHOTO



유년2부



1-11 이륙

유년2부



1-2 김주아

유년2부



1-14 민주아

유년2부



2-11 김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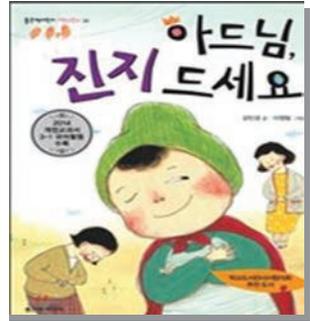
5월

제목 : 아드님, 진지 드세요

글/강민경

그림/이영림

출판사 / 좋은책어린이



언젠가부터 어린이들의 말은 유행어와 은어로 물들어 있습니다. 또, TV에 나오는 유행어와 인터넷 용어들을 사용하다보니 말이 점점 짧아지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누구에게든 사용하는 말이 짧아지고, 편한 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요즘 어린이들의 언어생활입니다.

흔히 높임말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높임말의 사용은 사회에 나올 때 필요한 에티켓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언어습관입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지내는 공간이자 관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쉽고 익숙합니다. 웃어른이나 부모님께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일쑤입니다.

『아드님, 진지 드세요』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이러한 언어 습관을 담은 창작동화입니다. 가족이라는 친밀감 속에서 묻히기 쉽지만 꼭 배워야 하는 높임말 사용을 엄마와 할머니의 재미있는 작전과 범수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로 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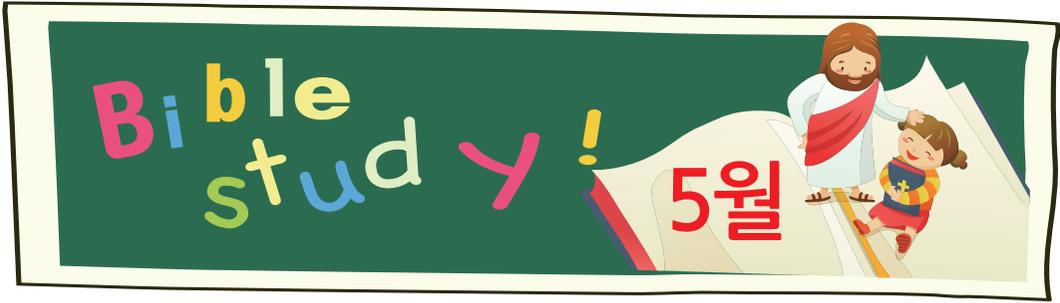
짜증 대장, 반말 대왕 범수의 변화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읽는 부모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며, 가족을 유쾌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 올바른 언어습관을 통해 남을 존중하고 섬기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STICKER

유년()부, ()학년, ()반

이름: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 가정예배 서약서 -

서약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 열왕기상 2:3 -



memo



